

미국경제의 특징과 심각한 위기

리 경 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써도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제위기를 면할수 없으며 그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하고 파국적인것으로 되고있습니다.》

(《김일성전집》 제57권 212~213페이지)

미국경제는 다른 제국주의나라들의 경제와 공통점을 가지고있으면서도 그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있으며 이로부터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미국경제의 특징은 무엇보다먼저 독점자본의 팽창이 강화된 경제라는데 있다.

미국독점자본의 팽창은 그 어느 제국주의나라독점보다 높으며 그 규모는 자본주의세계에서 가장 크다.

미국독점자본은 그 발생초기부터 높은 팽창수준에 있었다.

19세기말~20세기초 미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독점적련합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여러 부문들에서 불과 10~20년의 매우 짧은 기간에 형성되였다.

오늘 미국에서는 3~4개 대독점기업들이 해당 부문의 경제를 거의 다 틀어쥐고있다. 미국에서는 인구의 1%밖에 안되는 부유계층들이 재부의 40%를 차지하고있다.

독점이 지배하고 팽창하면 해외침략으로 나아가게 된다.

미국경제는 독점자본의 팽창이 강화된 경제이기때문에 미제국주의는 그 어느 제국주의나라들보다 침략과 략탈을 체질화한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 략탈자로 되고있다.

미국자본가들은 끊임없는 살육전쟁에서 막대한 황금을 긁어모으고 그것으로 생산과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강화하였다.

미국은 1776년부터 20세기 초엽까지의

사이에 110여차의 크고작은 전쟁과 8 300여차의 군사적간섭을 감행하여 령토를 본래의 10배이상으로 확장하였으며 모르간, 록펠러, 포드, 듀폰 등도 침략과 전쟁, 해외략탈에서 살찌고 독점으로 전환되였다.

미국독점자본의 전신이 이리하였기때문에 그에 토대하여 형성된 미국독점자본도 호전성과 야수성을 가지고 침략과 전쟁을 본업으로 삼았으며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시기에 더욱 강화되였다.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자본주의세계에서 압도적지위를 차지하였으며 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등장하였다.

침략전쟁과 군수산업의 확장을 통하여 비대해진 미제는 1945년부터 1985년까지의 기간에 260여차의 전쟁과 무장간섭을 진행하였으며 1950년대에는 조선전쟁을,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월남전쟁을, 1980년대에는 그레네이더와 바나마에 대한 무력침공을, 1990년대에는 페르샤만전쟁과 발칸전쟁을 감행하였다. 이 과정에 미국독점자본은 더욱더 비대해지고 팽창하였다.

20세기가 지나가고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에도 미제의 침략과 전쟁, 해외략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랭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미제는 세계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독단과 전횡, 패권주의를 일삼으며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비롯하여 도처에서 침략과 전쟁책동을 발광적으로 벌리고있으며 이 과정에 미국독점자본은 더욱더 팽창되고있다.

독점자본의 이러한 팽창은 미제로 하여금 침략과 략탈의 원흉으로, 국제반동의 두목으로 되게 하였다.

미국경제의 특징은 다음으로 고도로 군

사화된 경제라는데 있다.

미국경제가 고도로 군사화된것은 우선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는것과 관련된다.

제국주의는 력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밑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약탈정책을 추구하고있다.

그러나 미제처럼 세계제패의 야망에 환장이 된 나라는 없다. 미제는 생길 때부터 세계제패의 흉악한 야망을 품고있었으며 미제의 세계제패야망은 지난 시기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며 그것은 오늘 더욱 강화되고있다.

힘의 정책은 미제의 세계제패전략에서 기본을 이루고있다. 미제는 힘의 우위를 리용하여 다른 나라들에 공포를 주고 그 다음 무력침공을 가하여 군사적지배를 실현한다. 미제가 나라의 경제를 군사화하고 많은 돈을 군사비에 돌리면서 병력증강, 최신살륙무기생산 등을 다그치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미국경제가 고도로 군사화된것은 또한 미국에서 경제위기가 심화된것과 관련된다.

오늘 미국에서는 주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해외시장이 축소되고있으며 자동차, 건설, 강철, 금융 등 여러 부문들에서 침체상태가 계속되고 수많은 기업이 파산되고 있을뿐아니라 실업자들이 늘어나고있다. 미국의 무역적자와 국제수지가 계속 악화되고있으며 국가채무가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경제의 군사화의 강화는 일시적으로나마 경제위기를 지연시키거나 그로부터 벗어날수 있게 한다.

미국에서 경제의 군사화의 강화는 군수독점체들에게 국가로부터의 추가적인 수요를 조성해준다.

미국방성은 수많은 자금을 새로운 전략무기의 개발과 현대화, 미싸일방위체계의 수립, 대량살륙무기생산을 위하여 미군수

독점체들에 지출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에서 군수공업과 그와 관련된 중공업을 자극하고 그것이 다른 부문에 련쇄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일시 경제를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미국경제의 특징은 다음으로 전형적인 소비주도의 경제라는데 있다.

미국경제에서는 축적보다 소비가 위주로 되고있으며 소비에 의하여 경제의 발전이 좌우되고있다.

미국경제에서는 축적과 소비사이의 호상관계가 완전히 전도되어있으며 축적이 소비를 결정하는것이 아니라 소비에 의하여 축적이 좌우되고있다.

미국경제가 소비주도의 경제로 된것은 우선 미국에서 《소비미덕》이라는 반동적리론이 류포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의 소비를 의도적으로 망탕 자극하는 반동적인 경제구조리론이 출현하였으며 그것이 사회전반에 류포되었다.

《소비는 곧 미덕》이라는 궤변으로 사람들을 부패타락과 방탕한 생활, 령기적인 취미와 향락으로 추동하는 이 부르쵸아반동리론에 기초하여 오늘 미국경제는 소비주도의 경제로 되었다.

미국에서는 퇴폐적인 소비뿐아니라 방대한 통치기구를 가진 미국반동정부의 소비지출이 많은 몃을 차지하고있으며 그것이 끊임없이 증대되고있다.

미국에서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개인소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부문이 아닌 비생산부문에서 투기행위를 강화하고있다.

미국경제가 소비주도의 경제로 된것은 또한 미국에서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의 저하와 생산침체의 강화와 관련된다.

미국에서 최근년간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저하되고있다. 미국에서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저하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자본투자의 압당한 전망이다.

미국독점들은 더욱더 자주 막쳐오는 경제적파국에서의 손실이 두려워 새 투자를 하지 않으며 적은 투자로써 보다 높은 리운을 얻기 위한 책동에 매여달리고있다. 미국독점들은 생산의 확대대신 상품의 가격을 높여 더 많은 리운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낮은 설비가동률은 독점들로 하여금 더욱더 투자를 줄이고 높은 독점가격정책에로 넘어가게 하고있다. 여기에 오늘 미국에서 자본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원인의 하나가 있다.

미국에서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의 저하는 생산감퇴를 가져오고있다.

미국독점자본가들은 생산감퇴와 그 파국적후과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람들을 부패타락과 방탕한 생활, 럽기적인 취미와 향락에로 추동하면서 미국경제를 소비주도의 경제로 만들었다.

미국경제의 특징은 다음으로 파국적인 거품경제라는데 있다.

경제의 거품화현상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보편적이며 일반적현상이다.

자연발생적인 시장관계로 이루어져있고 돈에 의하여 모든 경제활동이 진행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운영과정에 거품이 조성되는것은 불가피하다.

미국에서는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볼수 없는 파국적인 거품경제현상이 발생하였다.

미국에서는 2000년부터 주택가격이 등귀하였다. 미국에서 주택가격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평균 2배이상 뛰여오른것으로 하여 수많은 주택대부회사들과 주택사용자들이 폭리를 노리고 주택투기에 뛰여들었다.

그러나 2007년에 들어와 주택거품이 터지면서 주택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2004년 4월 14일 뉴욕주권시장에서 다우존스주식가격의 저락은 617US\$로서

1987년 10월 19일의 주식시세저락폭인 508US\$를 훨씬 룡가하였다. 2008년 11월 뉴욕주식시장에서 다우존스의 평균지수가 9.11사건때의 기록을 돌파하여 력사상 최대의 폭락을 기록하였다.

주택대부회사들과 그로부터 자금을 대부받아 주택투기에 달려들었던 저소득층주택사용자들은 주택시세가 폭락함에 따라 막대한 빚을 지고 망하게 되었다.

미국경제가 거품화된 중요한 원인은 미국에서 주식과 부동산가격이 등귀하고 생산의 침체에 의한 투자저하로 자본금융시장에서 리자률이 끊임없이 저하된것과 관련된다.

오늘 미국경제는 심각한 경제위기속에서 허덕이고있다.

현시기 미국경제의 위기는 지난 시기 자본주의세계가 겪은 모든 경제위기를 훨씬 룡가하는 가장 폭넓고 파국적인 경제위기이다.

미국경제의 심각한 위기는 무엇보다먼저 미국의 국가재정위기, 채무위기가 심화되고있는데서 표현되고있다.

미국재정위기의 심화는 미국에서 재정지출이 늘어나 예산적자의 규모가 전례없이 증대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2004년 미국의 예산적자는 2003년에 비하여 근 500억US\$나 더 많은 4 130억US\$에 달하였으며 2008년 예산적자는 4 380억US\$에 달하여 미국력사상 최고기록을 세웠다. 그후 미국의 예산적자는 더욱 늘어나 2011년 10월부터 시작된 회계년도의 첫 11개월동안에 1조 1 600억US\$에 달하였다. 무역적자는 2009년에 3 806억 6 000US\$, 2010년 2.4분기에는 1 233억US\$에 달하였다.

국가채무가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는것은 오늘 미국경제가 안고있는 심각한 위기중의 하나이다. 2011년 3월 6일 미국의 국가채무총액은 14조 3 000억US\$에 달하였다.

최근시기 미국에서 국가재정위기, 채무 위기가 심화되고있는것은 군사비에 막대한 돈을 퍼부은데다가 이전에 발행하였던 채권들이 련이어 만기됨으로써 정부가 그 원금과 리자를 갚기 위하여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였기때문이다.

전세계를 군사적으로 제패하고 저들의 지배와 략탈의 체제를 확립하려는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미제는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의 군사화를 추진하고 군비경쟁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미국경제의 심각한 위기는 다음으로 딸라위기와 금융위기가 강화되고있는데서 표현되고있다.

딸라위기의 심화는 우선 현시기 미국경제의 경기상태가 악화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자본주의나라들의 경기상태는 환자시세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오늘 미국경제는 자체의 구조적취약성과 경제의 군사화의 강화로 하여 지속적인 쇠퇴기에 들어서고있다.

미국에서는 생산감퇴, 회사리윤감소와 기업의 파산이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미국에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생산업체들에서 리윤이 감소되자 외국투자자들은 미국경제전망에 대한 불안을 가지게 되었으며 결과 미국에 흘러드는 외국자본도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이것은 미국딸라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딸라시세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딸라위기의 심화는 또한 유로가 출현하고 미국딸라의 사용이 배척당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유로의 출현은 국제기준통화체제를 크

게 딸라중심과 유로중심의 두 극으로 분렬시킴으로써 딸라의 지위를 흔들어놓았다.

지금 유로는 유럽대륙의 금융시장, 자본시장, 환자거래시장에서 사용되고있으며 유로권밖의 나라들에서도 유로결제거래를 진행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에서도 미국딸라에 의한 결제가 배척당하고있다.

외화준비금면에서도 여러 나라들에서 유로재산을 늘이고있다.

현시기 미국에서는 딸라위기와 함께 금융위기가 강화되고있다.

미국의 금융업체들에서는 리윤이 줄어 들고 손실액이 늘어나고있으며 주요금융업체들이 파산되고있다.

2007년에 들어와서 제2저당대부시장위기와 주택거품이 터지고 그로 인하여 많은 주택대부회사들과 주택사용자들이 망하게 되었으며 주택대부시장에 자금을 대주던 대규모은행들인 씨티그룹과 메릴린치은행이 각각 500억US\$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미국에서 다섯손가락안에 꼽히던 투자은행인 레이만 브라더즈도 극심한 자금난으로 끝내 파산되었으며 미국에서 3번째 자리라고 하던 메릴린치은행도 경영난으로 허덕이다가 다른 은행에 늑거리로 팔리웠다.

세계도처에 지사를 두고 활동하던 미국의 어메리칸 인터내셔널그룹은 위험에서 벗어나보려고 미련방준비제도리사회에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하는 소란을 피웠다.

미국은 지금 파국적인 금융위기에 처하여 몸부림치고있다.

미국에서의 금융위기는 미국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가고있으며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가져오고 현대제국주의경제위기를 더욱 강화하고있다.